상태성 동사 ‘もつ’, ‘ある’에 관한 연구*

- 연어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

최 병 규**

국문초록

동사의 중심적인 카테고리적인 의미는 동작, 변화라고 하는 운동성이다. 이에 반해서 상태성 동사의 카테고리적인 의미는 존재, 관계, 특징, 상태라고 하는 비운동성의 주변적인 것이다.

본고는 종래에 아스펙트적으로 특수한 것으로 취급되어져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もつ’, ‘ある’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각각의 형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연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もつ’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으며 그 경우는 확실한 아스펙트적인 대립체계를 가지고 있는 운동동사이다. 그러나 이 ‘もつ’는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체의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작동사라고도 변화동사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양면성 중 변화적인 성격이 발전하여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소유는 일종의 관계이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もっている’, ‘もっていた’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변화의 부분을 표현하는 ‘もつ’는 점점 퇴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상태성 동사의 성격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는 ‘もつ’라고 하는 동작자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もっている’와 같은 의미를 ‘もつ’로도 표현 가능한 유사 아스펙트의 체계를 갖게 되어 결국 상태성 동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겠다.

‘ある’가 나타내는 다양한 텐스적인 특징은 ‘ある’문이 표현하는 ‘존재’, ‘사건’, ‘특징’, ‘동작’ 등 의미적인 타입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텐스적인 특징을 찾기 이전에 명사와의 결합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의미 분류를 행한 결과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人氣がある、興味がある’와 같이 특히 추상명사와의 결합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관용어적인 결합관계로 생각되는 것들도 다수 있어서 ‘ある’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もつ’ 동사와 추상명사와의 결합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もっている’로 표현되는 내용이 ‘ある’를 사용해도 표현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상태성 동사로서의 이들 두 동사의 의미적인 유사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もつ’동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상태성, 아스펙트, 존재, 특징, 소유관계, 연어, 사건

* 이 연구는 2010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 bgchoi56@hanmail.net

— 目 次 —

I. 들어가기	III. ‘ある’에 대해서
II. ‘もつ’에 대해서	IV. 마무리 및 앞으로의 과제

I. 들어가기

현대 일본어의 동사는 중지형과 연체형에 있어서 ‘スル、シタ、シテイル、シテイタ’라고 하는 4가지 텐스-아스펙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사에는 무드, 단속, 긍정-부정, 보이스 등 여러 가지 형태론적인 범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스펙트는 동사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범주이며 텐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텐스와 아스펙트는 동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는 문법적 범주이지만 하나의 형태는 텐스의 멤버인 동시에 아스펙트의 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일본어 동사의 아스펙트는 아스펙트적인 관점에서 동사 분류를 처음으로 시도한 金田一春彦의 「国語動詞の一分類」(1950)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스펙트의 의미가 ‘スル’와 ‘シテイル’의 대립과 동일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シテイル’의 의미에만 주목해 온 金田一단계는 오키다야스오(奥田靖雄; 1978)에 의해 방법론적인 오류를 지적받아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아스펙트 연구 대상에 관해서 ‘アスペクトが～スルと～シテイルの対立の中でとらえることによってはっきりしてくるものである以上、アスペクト的な形の対立をもたない動詞、つまりアスペクトの体系をもたない動詞は研究対象からは必ず必要がある.’라는 중요한 지적도 나왔다.¹⁾

오키다의 지적 이후 일본어 동사의 아스펙트 연구는 방법론이 개선되어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현재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스펙트의 체계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성 동사는 아스펙트이론상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을 뿐 운동동사의 연구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동사는 상태성 동사로 분류된 동사 그룹 중에서 특히 ‘もつ’, ‘ある’ 동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자 한다.²⁾

첫 번째 분석대상인 ‘もつ’는 지금까지의 아스펙트 연구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운동동사로서 뿐만 아니라 상태성 동사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대상인 ‘ある’는 흔히 존재를 나타낸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그 의미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1) 奥田靖雄,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上)」, 『教育国語』 53, 1978, 34쪽.

2) ‘상태성동사’란 용어는 鈴木重幸가 「日本語動詞のすがた(アスペクト)について」(『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1976, 67쪽)에서 처음 사용하였음.

과정 속에서 「ある」가 가지고 있는 텐스적으로 특수한 의미용법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입각하여 형식적인 관점, 즉 각각의 동사가 텐스·아스펙트적으로 형태의 어디에 특수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형태론적인 관점과 이들 동사가 문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결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라는 언어론(連語論)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기로 한다.³⁾

Ⅱ. ‘もつ’에 대해서

‘も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다의적인 동사이므로 우선 다음 문장들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가) 彼は手に大きな荷物をもっている。(작례)
- 나) 彼はスイス製の時計をもっている。
- 다) 彼は二人の子をもっている。
- 라) 彼はたくさんの思い出をもっている。
- 마) 彼は大きな手をもっている。
- 바) 彼は特殊な才能をもっている。

위의 문장의 의미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각각 미묘하게 다르다. 따라서 아스펙트적인 성격도 하나로 통틀어서 얘기할 수가 없으므로 ‘もつ’가 나타내는 내용을 동작, 소유, 특징으로 하위분류해서 각각에 대해서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もつ’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을 손에 들다(집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 (1) ‘~’こう云いながら、純一は袴を穿いてしまって、鳥打帽を手に持った。(青80)
- (2) その時、老の席を立つのを待っていたかと思われるように、入り代って来て据わった島田

3) 언어(連語)란 단어, 관용구, 문의 부분과 더불어 문을 직접 구성하는 단위이며 이들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법론의 영역이 언어론이다. 현대 일본어의 언어론에 대해서는 ‘言語学研究会,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1983.’ 참조.

は、例の別品である。手に徳利を持っている。(青131)

(3) 踊子は走って追っかけて来た。自分の背より長い太い竹を持っていた。(伊32)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持つ’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며 ‘シテイル (シテイタ)’가 수중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スル’의 예문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こんどは私がその荷物を持つ」의 ‘もつ’는 미래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물을 가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もつ’는 ‘スル, シタ, シテイル, シテイタ’ 형태가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스펙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운동동사인 것이다. 다만, 이 ‘持つ’가 동작동사인지 변화동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작동사라고 하면 예문 (2)의 ‘徳利を持っている’는 동작의 계속이지만, 변화동사라고 하면 변화 결과의 계속이 된다. ‘スル(シタ)’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문 (1)은 사냥 모자를 집는다고 하는 변화의 측면을 나타내지만, 다음 예문 (4)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상태를 전체적(일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4) 芸人達はそれぞれに天城を越えた時と同じ荷物を持った。(伊29)

이것은 ‘電車に乗った’가 전차를 타는 동작 측면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일정 시간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持つ’는 사람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어도 ‘走る’ 등과 달라서 계속상의 형태가 구체적인 동작을 수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작동사인지 변화동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持つ’의 경우 ‘~をもつ’는 언어론의 관점에서 접촉관계⁴⁾ 이루어 수 단적인 ‘手に’라는 어구가 사용됨으로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도구의 ‘に격’이 손이 아니고 포켓이나 주머니가 되면 그것은 도구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 ちょうど彼は、十六で死んだ少女の遺稿集を懐に持っていた。(伊152)

이것은 주체가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に격’이 객체(대상)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종지형에서는 항상 ‘シテイル (シテイタ)’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다음에 설명하는 소유에 가깝다. 그러나 소유의 경우 객체는 소유물로 그 장소는 소유주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비해서, 예문 (5)의 경우는 객체가 반드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장소

4) 접촉결합은 ‘接觸のむすびつき’를 말한다. 이 그룹의 특징은 ‘を格’ 명사로 나타내지는 사물의 동작·작용이 아무런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한 접촉 또는 파악으로 끝나버린다. 言語学研究会,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1983, 36~39쪽 참조.

가 주체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굳이 명칭을 부여하자면 소지(所持)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것을 내세울 만큼의 예문이 없었다. 이것은 구체적인 동작과 소유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표현으로 ‘持つ’가 나타내는 의미의 발전 과정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소지를 나타내는 용법을 거쳐서 구체적인 동작을 수반하지 않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게끔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2.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

(1) 경제적인 소유(구체적 사물의 소유)

- (6) ‘おお、幸、今思い出したが、おれは泰山の南の麓に一軒の家を持っている。’ (蜘蛛65)
- (7) 十月の初めに、熊さんは、‘家を一軒持ちますわ。’と鮎太に言ったが (あ104)
- (8) この菅沼は、今までの下宿を引き払って、二人して家を持った。(そ92)

소유란 경제적인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관계란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안정된 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물간의 연결이므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사물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일시적인 상태도 그것을 안정된 상태로 보면 관계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소유를 나타내는 ‘持つ’는 기본적으로 ‘シテイル (シテイタ)’의 형태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예문 (7), (8)은 ‘スル (シタ)’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때는 소유개시(소유관계의 발생, 성립)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를 나타내는 ‘持っている’는 변화 결과의 계속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게끔 된다.

(2) 인간관계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물이지만, 다음과 같이 인간을 소유물로 취급하여 ‘持っている’로 나타낼 때가 있다.

- (9) 梶鮎太は、戦争中に遅い結婚をして、おとなしいのと無口なだけが取柄の平凡な妻と二人の幼児を持っていた。(あ172)

‘彼は妻を持っていた’라는 표현에서 아내(妻)는 특정의 개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아내라고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물로서 파악할 수가 있어서 소유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人がある(いる)’라는 표현방법도 있다. 이때 ‘가격’에 나타나는 것

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명사이지만 ‘人を持っている’의 ‘を격’이 되는 것도 이것과 같은 종류의 사람명사이다.

‘人がある (いる)’라는 표현이 모두 ‘人を持っている’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人を持っている’가 소유구문이라는 것은 ‘を격’에 위치하는 사람이 소유물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사물취급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신과 동등하거나 아랫사람(처, 자식, 남동생, 여동생, 부하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부모나 상사 등 손윗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私は物分りの良い親を持って幸せだ」와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예문이 하나뿐이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3) 추상적인 소유

- (10) そうかと思うと易断に非常な興味を有っている。(そ28)
- (11) 彼は罪惡に就いても彼自身に特有な考えを有っていた。(そ126)
- (12) [私は]アデンの迷路で少年の頭に躍り狂った褐色の娘の裸像の記憶をもっていた。(白21)
- (13) そんな訳で捨吉は若い姉さんよりも、反ってこの年をとったお婆さんの方に余計に親しみももっていた。(桜50)

경제적인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사물이었지만, 위 예문과 같이 추상적 사물이라도 소유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명사는 생각, 지식, 권리, 희망, 흥미, 취미 등 다양하며 다음에 언급하는 측면(側面)과 확실하게 경계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측면은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생각, 지식 등은 주체에게 있어서 외재적이고 사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을 소유로 분류한 것은 예문은 없었지만 경제적인 소유와 마찬가지로 ‘持った’로 소유개시(소유관계의 발생, 성립)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상적인 소유를 나타내는 것 중에는 ‘考えをもつ’, ‘興味をもつ’ 등 명사와 ‘もつ’의 결합이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持っている’의 의미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

(1) 부분

- (14) 三千代は美しい線を綺麗に重ねた鮮やかな二重脣をもっている。(そ53)
- (15) これ以上日焼けしようのない肌と、この島の人たちの特色をなす形のよい鼻と、ひびわれた唇を持っている。(潮7)
- (16) 男は頭を坊主刈にし、肩の張った大きい體を持っていた。(あ22)

(17) それから又その都市が海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大きな魅力であった。(あ46)

예문 (14)~(17)은 얼핏 보면 소유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을격’ 명사는 소유물이 될 수 없는(사고팔기, 주고받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 사물이다. 또한 ‘을격’ 명사가 사람이나 생물 등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예문 (16)이나 (18)과 같이 사물의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을격’의 부분은 특징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예문 (15)를 보면 단순히 피부, 코, 입술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일부러 표현할 필요가 없지만 각각 특징적이기에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을격’이 특징적인 부분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규정어(수식어)가 되기 쉽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8) 彼は人の羨む程光沢の好い皮膚と労働者に見出しがたい様に柔らかな筋肉を有った男であった。(そ146)

(19) このような鐘塔をもった教会も、今、ブrou神父が住んでいる司祭館もなかった。(白105)

‘A는B를もっている’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A와 B의 관계는 ‘소유주’와 ‘소유물’이지만 예문 (14)~(19)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부분은 전체의 구성요소이며 그 부분이 없으면 전체도 없으므로 부분은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유물은 소유주에게 있어서 외재적인 것이다. 또한 소유관계에는 개시라고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持っている’를 변화 결과의 계속이라 생각하고 변화를 ‘もつ’, ‘もった’로 나타낼 수 가 있었다.

그러나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변화의 측면을 갖지 않는 순수한 관계이므로 ‘もつ’, ‘もった’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없으나, 부분을 나타내는데도 ‘もつ’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20) シクラメンーサクラソウ科の多年草。～。花はかがり火のような形にそりかえった五枚の花弁をもつ。(小学館国語大辞典)

다소 해설적이고 딱딱한 표현이지만 이때 ‘もつ’는 ‘もっている’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もっている’가 모두 ‘も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앞의 예문 (14)는 ‘もつ’로 바꾸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 버린다.

(14) 三千代は美しい線を綺麗に重ねた鮮やかな二重脣を持つ。(△)

그러나 다음 문은 ‘もつ’로 바꾸어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 (21) 事実、蒐集家の珍重する近似の種類はアポロチョウと呼ばれ、その純白の羽に動脈血のような紅斑紅斑と黒檀のような緑どりをもっている(もつ)。

‘もつ’로 바꿀 수 있는 문과 바꿀 수 없는 문의 차이는 특징적인 부분의 ‘소유주’에 있는 것 같다. 예문 (14)는 미치요라고 하는 특정개인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예문 (21)은 아포로 나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특징이 아니고 동종에 공통적인 특징의 경우는 ‘もつ’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다. 부분을 나타내는 ‘もつ’는 부분적으로 ‘もつ=もっている’가 되어서 두개의 의미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동일하게 되는 유사 아스펙트의⁵⁾ 대립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측면

- (22) どの男でも幾分か女の要素を持っているように、どの女でも幾分か男の要素を持っている。
(青88)
- (23) 新治は時計を持っていない。夜も、昼も、時間を本能的に知覚するふしぎな才能を代りにもっている。(潮112)
- (24) 鮎太は眼鏡をかけていなかったが、大部分の生徒が眼鏡をかけており、俯向いて歩く共通した癖を持っていた。(あ46)

이들 ‘~を持っている’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앞의 (1) 부분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부분을 나타내는 문에서 ‘을격’으로 표시되는 것은 소유주가 사람인 경우는 몸, 손, 발, 눈, 근육 등 주체의 구성요소의 부분을 나타내는 구체명사였다. 그러나 측면을 나타내는 문에서 ‘을격’으로 표시되는 것은 요소, 재능, 버릇, 성질 등 주체의 내적인 것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들이다. 따라서 주체의 내면적인 특징을 ‘~を持っている’로 표현하는 것을 측면관계로 하위분류하였다. 측면의 소유주는 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생물인 경우가 많지만 사물인 경우도 있다.

- (25) おなじ阪神の住宅地でも芦屋や御影とちがい、ここは空気も乾き土地の色も白く、ふしぎに異国の小さな田舎村のような風景をもっていました。(白91)
- (26) 新聞記者である以上誰でも予定記事を書くことはあるが、予定記事の持っている荒さもちぐはぐさもなかった。(あ149)

예문 (27), (28)과 같이 표정이나 태도 등 일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 이들은 항상적인(탈시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맥을 살펴봐야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5) 유사 아스펙트란 오쿠다의 ‘ニセ・アспект’의 번역 용어이다.

- (27) そう静かに言って、木原は弱々しく笑った。その顔は混ぜ返すことができないある悲痛さを持っていた。(あ106)
- (28) ‘俺は違う’と、金子は肩を怒らせておでんの蒟蒻を大口に頬張ると、肩をそびやかすようにして昂然として目をつむった。その態度はどこかに肯定的なものを持っていた。(あ91)

다음 예문은 양쪽의 의미로 다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 (29) 貴方そんな所で寝ると風邪引いてよ」と細君が注意した。細君の言葉は東京の様な、東京でない様な現代の女学生に共通な一種の調子を持っている。(門6)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특징이므로 주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もつ’ 형태로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문 말에 ‘もった’는 나타나지 않는다.

‘もつ’형의 예문이 없었지만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持っている’와 같은 의미로 ‘もつ’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もつ’형으로 하면 ‘持っている’보다 해설적인 딱딱한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持っている’라도 앞의 ‘소유’의 경우는 이전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태인데 반해서 ‘특징’의 경우는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をもっている’ 형태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스펙트적인 대립관계가 없으며 문 말에 전적으로 ‘している(していた)’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Ⅲ. ‘ある’에 대해서

상태성 동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ある’는 기본적으로 존재(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スル’의 형태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으며⁶⁾ ‘シテイル(シテイタ)’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의 운동동사와 크게 다르다.

여기서는 ‘존재를 나타낸다’고 간단히 설명되고 있는 ‘ある’동사의 의미를 보다 세분하여 특히 텍스트적으로 특수한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ある’는 사물의 존재를, ‘いる’는 사람의 존재는 나타낸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人がある’란 표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人がある’표현에 대해서는 ‘ものがある’문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人がいる’문과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6) 아스펙트적으로 완성상 ‘スル’의 형태로 존재(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金田一春彦(1955)에서는 상태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1. 구체적 사물과 결합하는 경우

‘ある’란 동사는 다양한 명사와 결합할 수가 있으므로 우선 의미 파악이 쉬운 구체적 사물과 결합한 경우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존재

- (30) 綺麗に片付けた机の上には、読みさして置いて出たマアテルリンクの青い鳥が一冊ある。
(靑141)
- (31) 権現前から登って来る道が、自分の辿ってきた道を鉛直に切る処に袖浦館はある。(靑5)
- (32) 其所(洋卓の上)には代助の食後の嗽をする硝子の洋盃があった。(そ136)
- (33) 女学校は駅から四丁程隔たった町の外れにあった。(あ57)

이들은 구체적 사물의 존재를 나타낸다. ‘ある’로 발화시점(현재)의, ‘あった’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과거시점의 존재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ある’자체는 상태의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문 (30), (32)와 같이 일시적인 상태라도 예문(31), (33)과 같이 불변의 상태라도 표현할 수가 있다.

구체적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은 장소(소재지)의 ‘に격’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소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지만 예문 (34)와 같은 표현을 거쳐서 예문 (35)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장소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또 예문 (36)과 같은 회화문에서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장소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 (34) まだベンキの香のする階段を上がって行って二階の部屋へ出ると、そこに沢山並べた書架がある。(桜76)
- (35) 街道を少し南へ行くと綺麗な橋があった。(伊23)
- (36) そこで平岡は八の字を寄せて、庭の模様を眺め出したが、不意に語調を更えて、‘やあ、桜がある。~’と云った。(そ16)

장소의 ‘に격’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고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37) 国の土蔵の一つに、がらくた道具ばかり這入っているのがある。(靑158)
- (38) 代助は二、三の唐物屋を冷かして、入用の品を調えた。その中に、比較的高い香水があった。(そ167)

공간적인 장소에서의 사람의 존재는 ‘人がいる’로 표현되지만, 위의 예문과 같이 어떤 범위 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人がある’문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범위내의 존재라고 해서 항상 ‘人がある’가 아니며 ‘人がいる’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 (39) 僕の知ったものに、まるで音楽の解らないものがある。(そ22)
- (40) そういう若い人達の中には身体の黒いのを自慢な古顔もあり、漸く渋皮の剥けかかった見知らぬ顔もあった。(桜62)
- (41) 恋人の中にはプラトニックな侯爵がいる。芸術家風の情熱のある青年音楽家がいる。(青197)

여기서 ‘人がいる’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ものがある’와 마찬가지로 상태의 지속시간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인 상태도 표현 가능하며 예문 (44)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또 예문 (45), (46)은 존재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표현하고 있다.

- (42) だが隣室には青洲がいる。(華132)
- (43) 少年は昨日とおなじ場所にいた。(白19)
- (44) 誠吾の外に姉がまだ一人あるが、これはある外交官に嫁いで、今は夫と共に西洋にいる。(そ28)
- (45) マリー・テレーズという女学生がいます。その女を責めるのです。この男の前で (白72)
- (46) ‘まだ人間で試すところまではいっていませんのや。それでのうても。試す人間がいるとは考えられへん。’ (華106)

또, 다음과 같이 ‘に격’ 명사가 연구소나 학교, 회사 등 조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속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7) ~巴里のバスターナル研究所にメチュニコフというロシア人がいる。(青153)
- (48) 丁度同じ学校に、一つ二つ年上で痩ぎすの、背の高い、お勝という女生徒がいた。(青180)

연구소, 학교 등은 공간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に격’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것은 연구소나 학교 등은 조직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건물 자체도 나타내기 때문이다.

(2) 특징

- (49) (菊載の)頭の頂に一つの黄色い線を囲んだ、太い黒線がある。(伊128)
- (50) 彼等の戸には必ず節穴がある。(そ78)

(51) 右腕には小さい桜の花卉の入墨があった。(あ198)

예문 (49)~(51)은 공간적인 장소에 있어서의 존재를 표현하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AにBがある’라는 문형을 취하고 있다. ‘に격’은 장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과 달라서 ‘Bがある’가 일체가 되어 A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Bがある’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의 A는 존재 장소라기보다는 특징(속성)의 주체(소유주)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 장소의 ‘に격’은 문장 전체로 볼 때 부수적인 것이므로 A(장소)와 B(존재물)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B가 A의 일부분으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AにBがある’라는 문장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는 B에,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A에 표현의 중심(초점)이 있다는 사실은, 연체형으로 고친 경우 ‘ある’가 A와 B 어느 쪽을 수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미적으로 ‘岡の上にある講堂, 路傍にある石, 部屋の中央にある机’ 등과 같이 ‘AにあるB’와 같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는 ‘八重歯のある子, 傷のある男, 窓のある小部屋’와 같이 ‘BのあるA’가 되는 경우가 많다.

‘Aに(は)Bがある’라는 문장이 사람이나 생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もつ’를 사용해서 ‘AはBをもっている’처럼 타동사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

(3) 소유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もっている’를 사용해서 표현하지만 ‘ある’로도 소유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52) ‘オシゲ, 金あるか’男はいきなり言った。‘あらへん’ (あ193)

(53) ‘千に足らない金だったから、僕が出して置いた’ ‘よく有ったね。君も大分旨い事をしたと見える。’ (そ24)

예문이 두 개뿐이라서 ‘ある’의 용법으로 소유를 내세우는 것이 약간 무리일 수는 있지만 양쪽 다 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金がある’로 관용적으로 소유를 나타내게끔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4) 인간관계

‘人に(は)人がある’라는 문형은 인간관계를 나타낸다.

(54) お雪さんに小さい妹がある。それがジフテリイになって~ (靑96)

(55) ‘熊さん、子供あるの’ ‘一人おまんね’ (あ180)

(56) 代助の父には一人の兄があった。(そ42)

이들 문에 나타나는 사람명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즉 남편, 처, 자식, 형, 친구, 연인 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명사라는 사실이다. ‘お雪さんに小さい妹がある’라는 문은 ‘雪씨에게는 여동생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여동생은 실제로는 특정의 개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일반적인 ‘여동생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화된 개념이므로 사물로서 취급하여 ‘ある’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인간관계는 ‘いる’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예문 (54)~(56)까지는 ‘ある’를 ‘いる’로 바꾸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예문도 있었다.

(57) 国にいた時、碁を打つ友達がいた。(靑192)

‘人がいる’문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도 있었다.

(58) 私にはキミコがいる。もし日本の警察が憲兵かに拉致された場合、彼女はどう生きていくだろう。(白107)

(59) 於繼は云う通り老先の短い体だろうが、加恵には幼い小弁がいた。(華126)

이들은 문형적으로는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가깝지만 ‘가격’이 고유명사라는 점이 다르다. 예문 (58)의 기미코는私の 처, 예문 (59)의 小弁은 加恵의 딸이다. 이들 문장에서는 ‘가격’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に격’으로 표현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란 사실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문형과는 조금 차이가 보인다. 또 인간관계는 ‘持っている’를 사용해서 ‘人は人を持っている’의 소유관계 구문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5) ‘~する人がある’ 문

소설의 문장체에 있어서 무언가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する人がある’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60) 英語の讚美歌の節を歌いながら庭を急ぐものがある。張り裂けるような大きな声を出して暗い樹蔭の方で呼ぶものがある。(桜13)

(61) 休みの時間毎に出てみると、校堂を圍繞く草地の上には秋らしい日が映って来ている。足を投げ出す生徒が。(桜103)

이들 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장면묘사의 부분이므로 ‘木がある,家がある’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ある’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 타입의 예문은 모두 島崎藤村의 ‘桜の実の熟する時’란 소설 속에서 나온 것이라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다음 예문은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 취한 것으로, 이 경우 ‘~した人がある’는 ‘人が~した’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표현의 초점이 동작(동작성)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타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62) 傍から遠慮げに喙が容れた男がある。(青37)

(63) ‘それにしても、なぜ自分は咄嗟に扉の陰へ隠れたのかしら’と、呟きながら廊下を引き返して来ると、親しげに挨拶した男があった。(伊151)

이들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는 인물을 연체형으로 수식 한정한다고 하는 연체형의 구조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추상적 사물과 결합하는 경우

‘ある’는 어떤 추상명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며, 그 경우는 모두 존재를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 추상명사와 ‘ある’와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구체적 명사와의 결합관계의 경우와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존재

(64) 摂理という言葉がある。人間の不測の運命にたいする基督教の考え方だ。(白74)

(65) 基督教の中にもいろいろな宗派がありますね。(桜59)

(66) キミコと私との間には二十歳以上の隔たりがある。(白110)

(67) 時間はまだ二十分程ある。(青86)

(68) 伊豆屋までは五、六町の道のりがあった。(あ19)

구체적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공간적인 장소격인 ‘に격’에 의해 장소를 표현하고 있지만 추상적 사물의 존재에서는 장소는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으며 다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다. 예문 (65)에서는 존재 장소가 ‘に격’에 의해 표현되어 있지만 이 장소는 공간적인 장소가 아닌 어떤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2) 특징

구체적 사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사물의 경우도 ‘~がある’ 전체로 특징을 나타내며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특징의 주체(소유주)는 ‘격’으로 표현된다.

- (69) 彼の皮膚には濃やかな一種の光沢がある。(そ6)
 (70) ‘蘭方にも漢方にも長所があると同時に欠点があります。~’(華55)
 (71) そこ[庭先]には伝馬町あたりの町中とも思われないほどの静かさがある。(桜166)
 (72) 於繼の口調には断乎としたものがあった。(華115)

추상물이라도 특징을 나타내는 ‘Aに(は)Bがある’문은 ‘AはBをもっている’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은 ‘もつ’의 의미용법 중 ‘3의 (2) 측면’에 해당된다. 구체적 사물의 경우는 부분과 측면을 나타내는 양쪽 용법이 있었지만 추상적 사물의 경우는 측면을 나타내는 용법뿐이다.

(3) 사람의 내적인 상태

- (73) ‘小父さん、僕は御願いがあります’(桜128)
 (74) 私には、そのピロウドのケープに見覚えがある。(白73)
 (75) 遠いむかしどこかでその顔を見た記憶があった。(白129)
 (76) 代助から見ると、誠吾は蔓のない楽缶と同じことで、何処から出を出して好いか分らない。然しそこが代助には興味があった。(そ68)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2) 특징’의 용법과 비슷하지만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는 ‘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측면, 즉 그 사람의 내재적인 측면이므로 소유주인 사람과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 ‘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탁, 권리, 기억, 흥미 그밖에 생각, 의견, 책임 의무 등 당사자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이므로 사람과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人がある’도 ‘~をもっている’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もっている’는 구체적(경제적)인 소유에서 발전한 추상적인 소유를 나타낸다고 생각 할 수가 있다. 이 사실에서도 ‘願いがある、考えがある’ 등의 ‘願い、考え’는 사람에게 있어서 외적인 성질의 것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4) 경향

‘~することがある’라는 표현은 동작 주체의 경향을 나타낸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반복된 동작이 미래에 있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동작 주체의 경향(특징)으로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아니고 확대된 현재에 있어서 경향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 ‘~することがあった’는 과거시점의 경향을 나타낸다.

(77) [兄]そうかと思うと、時にトルストイと云う人は、もう死んだのかねなどと妙な事を聞く事がある。今日本の小説家では誰が一番偉いのかねと聞く事もある。(そ66)

(78) 鮎太は呼び出されて、風呂に入っている彼女のために、薪をくべてやることがあった。(あ51)

(5) 경험

‘AはBしたことがある’는 A가 과거에 행한 사실을 현시점에 있어서 되돌아보고 있는 표현, 즉 A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잠재적인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79) 整理の任に当たった長井は彼等に一時の融通を頼んだ事がある。(そ36)

(80) 彼は夜の明けるまで、意地っ張りの根くらべをしたこともあった。(伊148)

(6) 미래 사태

‘ある’동사는 스ルの 형태로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반적인 운동동사와 마찬가지로 미래 사태나 그 사태의 발생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것은 ‘ある’의 특수한 용법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주어는 ‘가격’을 취한다.

(81) ここで客の受取り渡しがある。前哨戦が張ってあるようなものだ、純一は思った。(靑182)

위의 문장은 가까운 미래 시점에 ‘客の受取り渡し’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ある’동사가 일반 동사와 마찬가지로 미래 사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결합되는 명사가 단순히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고 운동회, 연설회, 소풍, 판매 등 운동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사건(出來事)명사의 경우이다.

또 ‘客がある’란 표현의 경우, 이것은 ‘人がある’와 같은 타입이지만 미래를 나타낸다. ‘客’는 사람 명사이므로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는 ‘隣の部屋に客がいる’와 같이 ‘いる’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今日は客がある’의 ‘客’는 사람을 나타내기 보다는 ‘來客’라고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사건이나 운동을 나타내는 명사가 ‘ある’와 결합하면 사건의 발생을 나타내며, ‘出來事があった’는 과거에 그 사건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용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82) 十月二日、大学で入学式があった。(白27)

- (83) すると、今度は寧ろ法外に熱した具合で‘うん、大分暖かい’と力の入った返事があった。
(そ16)

‘スル’의 형태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ある’, ‘あった’가 사건 전체를 일체적으로 나타내다고 하는 사실은 운동동사와 공통적인 점이라 하겠다.

한편 존재를 나타내는 문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라서 한 순간(시점)에 표현할 수(담겨지지)가 없다. 다음 예문에서 ‘ある’에 의해 표현되는 존재는 ‘私が東京に来た頃には、その時分は’에 의해 시간 한정을 받고 있지만 한 시점(私が東京に来た時)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을 포함해서 전후로 확장된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진 시간(기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84) 私が東京に来た頃には、東京府庁はと土橋の中にあった。(人87)
(85) 上野の図書館は、その時分はまだ美術学校の裏の方にあった。(人18)

한편, 다음 예문은 폭을 가진 시간(기간)이 아니고 한 점(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예문의 ‘~した時’로 표현되는 것은 일정한 폭을 가진 시간(기간)이 아니고 한 점(시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 시점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존재 시점이 아니고 화자가 그 사물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거나(인식했거나) 혹은 발견했다고 하는 화자의 ‘인식의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86) 去年私が旅行で通りかかった時、この家の庭には見事な松の木があった。
(87) 前にこの部屋を訪ねた時、確かにここに足跡があった。

이 차이점은 다음 두 예문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다

- (88) 昨日行った旅館にはすばらしい松があった。
(89) その旅館には、昨日、すばらしい松があった。

이 때 예문 (89)의 경우는 ‘松があった’라고 하는 존재사실을 ‘어제’라는 시간부사가 한정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예문 (88)과 같이 ‘昨日行った旅館は’와 같이 간접적인 형태로는 시간을 한정할 수가 있지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처럼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로 한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시간을 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동동사와 존재동사가 서로 다른 점이기도 하다

3. 존재를 나타내는 한어동사

대표적인 존재동사 ‘ある’는 ‘スル’의 형태로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으나 계속상 ‘シテイル (シテイタ)’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언급하는 한어동사는 구체적인 현재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シテイル (シテイタ)’의 형태를 가지지만 ‘スル’의 의미와 동일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는 ‘スル’와 ‘シテイル (シテイタ)’의 형태의 대립은 있지만 의미적으로 동일하여 유사 아스펙트의 대립관계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나타내는 한어동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90) 保守政治に対する批判もまた、義務教育のなかに織り込まれて行く危険が存在する。(人67)
- (91) 光合成の有機合成経路もまったく同様で、これに関与する複雑な合成過程はすべて、光合成しない生物にも存在している。
- (92) 俺は今だってここに存在しているよ。(白81)
- (93) だから、代助は今日まで、自分の脳裏に願望、欲望が起るたび毎に、これ等の願望を遂行するのを自己の目的として存在していた。(そ147)

‘存在する’는 어휘적으로 ‘ある’와 같은 존재를 나타내므로 그 상태가 일시적인지 불변의 항상적인 것인지는 문제시하지 않고 다만 사물의 존재여부를 서술할 뿐이다. 따라서 예문 (91)과 같이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문 (92)와 같이 ‘今だって’란 어구를 수반하여 구체적인 현재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 문 말의 예문 중에는 ‘スル’보다는 ‘シテイル (シテイタ)’의 형태가 많았다. 예문 수가 적어서 결론적인 얘기는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ある’와 ‘存在する’는 어휘적으로 동일하지만, ‘ある’는 순수 일본어이지만, ‘存在する’는 한자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存在する’는 ‘명사+する’라는 단어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する’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シテイル’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 ‘シテイル’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쳐서 ‘存在する’보다는 ‘存在している’ 형태가 보다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IV. 마무리 및 앞으로의 과제

동사의 중심적인 카테고리적인 의미는 동작, 변화라고 하는 운동성이다. 이에 반해서 상태성 동사의 카테고리적인 의미는 존재, 관계, 특징, 상태라고 하는 비운동성의 주변적인 것이다.

본고는 종래에 아스펙트적으로 특수한 것으로 취급되어져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もつ’, ‘ある’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각각의 문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もつ’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으며, 그 경우는 확실한 아스펙트적인 대립체계를 가지고 있는 운동동사이다. 그러나 이 ‘もつ’는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체의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작동사라고도 변화동사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양면성 중 변화적인 성격이 발전하여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소유는 일종의 관계이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もっている’, ‘もっていた’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변화의 부분을 표현하는 ‘もつ’는 점점 퇴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상태성 동사의 성격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는 ‘もつ’라고 하는 동작자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もっている’와 같은 의미를 ‘もつ’로도 표현 가능한 유사 아스펙트의 체계를 갖게 되어 결국 상태성 동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겠다.

‘ある’가 나타내는 다양한 텐스적인 특징은 ‘ある’문이 표현하는 ‘존재’, ‘사건’, ‘특징’ ‘동작’ 등 의미적인 타입에 크게 좌우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텐스적인 특징을 찾기 이전에 명사와의 결합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의미 분류를 행한 결과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人氣がある、興味がある’와 같이 특히 추상명사와의 결합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관용어적인 결합관계로 생각되는 것들도 다수 있어서 ‘ある’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もつ’동사와 추상명사와의 결합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もっている’로 표현되는 내용이 ‘ある’를 사용해도 표현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상태성 동사로서의 이들 두 동사의 의미적인 유사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もつ’동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아스펙트의 관점에서 본 특수성을 출발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종지형 중심으로 연체형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태성 동사가 어휘적으로 볼 때 형용사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규정어로서 작용하는 연체형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싶다.

〈참고문헌〉

- 奥田靖雄,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一金田一的段階一」, 『日本語研究の方法』, むぎ書房, 1977, 203~219쪽.
- _____,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上)(下)」, 『教育国語』 53,54, むぎ書房, 1978, 33~34쪽.
- 金田一春彦, 「国語動詞の一分類」,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 1976, 7~9쪽.
- 工藤真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ー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一』, ひつじ書房, 1995, 165~220쪽
- 言語学研究会,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1983, 21~89쪽.
-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1972, 375~383쪽.

〈인용 작품〉

それから (そ)	(夏目漱石)	青年 (青)	(森鷗外)
桜の実の熟する時 (桜)	(島崎藤村)	伊豆の踊子 (伊)	(川端康成)
あすなろ物語 (あ)	(井上靖)	蜘蛛の糸 (蜘蛛)	(芥川竜之介)
白い人・黄色い人 (白)	(遠藤周作)	潮騒 (潮)	(三島由紀夫)
華岡青洲の妻 (華)	(有吉佐和子)	門 (門)	(夏目漱石)
人間失格 (人)	(太宰治)		

- *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어,
 2012년 1월 26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2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2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Ⅰ 日文抄録 Ⅰ

状態性動詞‘もつ’, ‘ある’に関する研究

- 連語論の立場を中心に -

崔 炳 奎*

本稿は従来のアスペクト研究においてアスペクト的に特殊で周辺的なものとされてきた、状態性動詞のなかで特に‘もつ’, ‘ある’動詞に焦点をあわせて、その特殊性についてそれぞれ語彙的な意味だけでなく連語論的な観点から分析を行ったものである。

まず、‘もつ’のあらわす意味を分類しながらアスペクト的な性格を考えたが、‘もつ’には基本的なものとして、具体的な動作をあらわす用法があって、その場合は明らかにアスペクトの体系をもつ運動動詞である。しかし、その‘もつ’は人の動きをあらわすと同じように客体の変化も同程度に重要なため、動き動詞とも変化動詞とも言い切れない中間的なものとなっている。そして、その変化動詞の側面が発展して、所有をあらわす用法が生じたと考えられる。所有は一種の関係であって、状態をあらわしているので‘もっている(もっていた)’で表現されるのが一般的になり、変化の部分をあらわす‘もつ’は消えつつあると言えそうである。つまり状態性動詞の性格が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だ。さらに特徴をあらわす場合は‘もつ’という動きがないうえに、‘もっている’と同じ意味を‘もつ’でもあらわせる、ニセ・アスペクトの対立をもつので状態性動詞としての性格が強くなっているという結論になる。

‘ある’があらわす様々なテンス的な特徴は、この文があらわす‘存在’, ‘出来事’, ‘特徴’, ‘動作’, ‘様態(状態)’など意味的なタイプと深くかかわ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したがって、テンス的な特徴を見つけるまえに、名詞との結びつきに焦点をあわせて分析を行った結果、多くの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ながら、‘人気がある, 興味がある’のように特に抽象的な物と‘ある’との組み合わせについては、分類はしたものの、その組み合わせ自体が慣用的になっていると思われるものも数多く、‘ある’のもっている意味を十分に一般化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これについては「もつ」動詞と抽象名詞との組み合わせについてもより詳しい分析が必要であろう。

最後に、‘もっている’であらわされる内容が‘ある’を使っても表現できることが多いということも二つの動詞の類似性と共に状態性動詞としての‘もつ’を考えるとときに重要であろう。

【主題語】 状態性, アスペクト, 存在, 特徴, 所有関係, 連語, 出来事

* 檀國大學校 教授